

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후의 삶이 중요해지는 이때에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니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호주 시니어미션이 잘 출발이 되어 많은 시니어들을 선교적 삶에 헌신할 수 있게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구 : 지난 9년간 GAiN(Global Aid Network, 의료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시니어들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에 따라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을 떠나 호주에 정착한 혼신된 시니어 기독교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운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니어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김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가 그리 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여 일어나자

사회 : 말씀을 듣고 보니 여기 계신 모든 분 모두가 시니어미션의 ‘맞춤인물’들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분들을 필요할 때에 부르셨다는 마음이 들군요. 이 시니어미션이 단순히 한국과 호주의 몇몇 분들이 동아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아는데, 이에 대해 소개와 더불어 시니어미션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성구 : 시니어미션에 가장 앞장 선 교단은 미국 남침례교입니다. 1999년에 남침례회 선교부는 장년과 노년의 선교사역을 위한 마스터즈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재능과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하고, 정서적, 신체적, 영적 건강과 믿음이 있는 50세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2~3년 정도의 단기계약을 선교지에 파송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는 2000년 초 몇 지역에서 “모든 족속을 예수께”란 목표를 가지고 ‘실버선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시니어미션 한국’이 “시니어들이여 일어나자!”를 외치며 설립되어 시니어선교의 새로



이성구 목사

시니어 선교라는 의미는 다른 선교와 구별이 됩니다. 교도소 선교, 직장 선교라고 하면 교도소나 직장이 선교의 대상이지만, 시니어 선교는 시니어가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 시니어가 하나님의 전도/선교에 참여하는 실행자임을 나타냅니다.

대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깨우치고 일으켜서 시니어 전문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기쁨이요 보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니어들이 선교에 적합한 것은 가사 일에 비교적 자유롭고, 인내심과 정서적 안정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목회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거나 문제가 있는 교회를 잘 섬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어울러 시니어들은 자녀양육의 룰 모델로 또는 조부모가 없는 가정에 조부모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회의 시니어미션은 초창기부터 주저함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니어미션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교 유형을 개발하여 시니어 선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갑용 :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흔히 은퇴 준비를 재정적인 준비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의 시니어들은 비교적 재정적인 준비에서는 한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살아갈 목표와 의미를 정립

운장을 열었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 지부가 설립되어 시니어 기독교인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측도 :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을 전후하여 한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호주의 한국교민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호주 교민 전체의 2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 중에 50%가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할 때, 기독교 시니어의 숫자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많은 교회들은 청장년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시니어들에 대한 사역은 대체로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지혜, 축적된 경험과 신앙의 유산, 역사적 정체성과 시